

석유화학 4사 사회적기업 지원

울산에서 S-Oil 및 SK케미칼, SK가스, SK유화 4곳이 사회적기업에게 지원을 약속했다.

4사는 12월30일 울산 지역의 사회적기업과 결연함으로써 S-Oil은 나누리사업단과 재활용품 기증, 기념품 구매, 사내 홍보 등을, SK케미칼과 SK가스는 여천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장갑 구매를, SK유화는 양지물산에 폐지 등 재활용품 기증을 약속했다.

결연식에 앞서 이미 현대자동차는 (주)한백, 아삭김치사업단, 나눔재활용사업단 등과 결연해 세탁물 위탁, 김치 구입, 중고 컴퓨터 제공, 도서 기증 등을 실천하고 있다.

울산에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16사와 예비사회적기업 4사가 각각 활동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0/12/30>